# 목장 모임 교재

**2013년 07월 17일(수)**

# “믿음의 경주”

히12:1-2

올림픽 경기를 하면 많은 경기 종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이것은 마라톤이 가장 많은 인내를 요구할 뿐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장 힘든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 최고의 명예를 안겨 줍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단거리로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한 평생을 통해서 달려야 하는 영적인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옆이나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기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펼치는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좇아가는’ 운동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달려갔습니다

**“(딤후 4:7-8)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신앙의 싸움이란 주님이 예비한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합니다. 운동선수는 가능하면 가볍게 경기에만 몰두 할 수 있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운동선수가 여러 가지 짐을 잔뜩 지고 시합을 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욕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기도 어려운데다가 이 세상이 모든 성공과 출세와 인정 받는 것을 포기해야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뒤에서 우리를 당기는 세상의 힘이 보통 센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을 채찍질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양면적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경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표 있는 삶**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시거나 큰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평생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도 택하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 없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러한 목표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적인 목표와 상대적인 성취감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시적입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세상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참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미네노 다쓰히로가 쓴「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 원하던 대학에 들어간 후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통하게 여긴 부모들이 그 아들을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일기장을 들췄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유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끌고 갈만한 절대적인 가치와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표와 꿈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때는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사항으로는 먼저 매사에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 일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속한 일과 우리에게 속한 일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명한 성공학 작가인 데일 카네기는 헨리 포드가 임종하기 몇 해 전에 그와 회견을 한적이 있습니다. 카네기에게는 "굴지의 기업을 이루어 낸 포드의 얼굴에는 세월의 고뇌가 담겨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를 대할 때 일흔 여덟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게 젊고 침착하고 온화한 포드의 모습을 대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카네기가 포드에게 살아오면서 고민한 적이 없으냐고 물었을 때 포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일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견이 필요치 않습니다. 만사가 최악의 상태가 되더라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고민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 욕심과 정욕에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뜻을 구하는 자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자랑거리가 자신으로부터 상실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순종의 본**

가나안 정복시 요단강에서 법괘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담갔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던 강물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교회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천국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 사탄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셔서라도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신의 지식과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순종,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의 순종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 회퍼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신앙이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는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지구상에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피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의지해서 귀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영접 전후로 비교해 주시거나, 각자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 전후로 비교해서 변화된 부분들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자녀들의 인생목표 설정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서로의 원칙들과 방법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것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각자 인생의 최고 어려운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셨는지 여부, 못하셨다면 그 이유, 순종하셨다면 그 이후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6.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